

조경에서의 물성발현에 관한 연구

-물성의 개념과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의 의의를 중심으로-

문지원* · 조정송**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지난 2000년에 시행된 선유도 공원화 사업의 기본개념 중 과거 시설물들의 흔적을 통해 기억을 회생시킨다는 '형태의 재현'에 관한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는 구조물 일부의 재료가 드러내는 성질 및 그 변화 양상을 시각적 모티브로 하는 형태적 재현을 통해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개념이다(서울시 한강사업기획단, 2000: 9). 선유도 공원에서 발현된 재료의 성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의 역동성과 더불어 땅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장소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매체로서 재료의 위상을 새롭게 부여했다. 이로써 장식과 기능 위주로 조경재료를 파악했던 기존의 인식은 크게 전환되었다. 시간의 흔적을 통해서 공간의 의미를 더욱 풍부히 전달하는 매체로서 재료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재료가 지니는 고유한 속성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이끌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과 문화의 형성과정과 상호작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주변 환경의 맥락을 수용하여 통합적인 환경으로서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재료의 물성¹⁾은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가운데 경관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주는 설계매체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형언어로서 조경설계언어의 매체인 물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조경설계에서 소재의 물성표출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경관의 의미를 나타내고, 경관의 체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재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모더니즘 이전,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조경에서 전개된 물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물성개념을 토대로 하여 현대 조경설계매체로서 물성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재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관의 의미를 전달하는 조경소재의 물성의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언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조경에서 전개된 물성 개념

1. 모더니즘 이전의 소재에 대한 인식

자연을 신격화하는 몰활동적인 주술신앙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영속적인 삶의 회귀를 단단하고 거대한 거석에 상징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스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의 신위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로 옮겨졌고, 이 신화는 로마시대로 이어져 상징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인간의 영혼과 자연의 영혼이 교감하는 상징적 장소로 인식된 석굴 형태의 그로토(grotto)는 요정이 사는 신성한 동굴을 재현하기 위해 자연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자연석은 18세기 픽켄레스크 정원에서 전원풍경을 재현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동시에 장식적 요소가 된다. 보-르-비콩트(Vaux-le-Vicomte)의 자연석으로 구성된 그로토는 티베르(Tiber)강의 신이 거주하는 안식처를 재현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신화에서 얻은 모티브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에서 도상(iconography)의 형상으로 재현되었으며, 소재는 이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형상에 종속된 소재의 위상은 이상적 전원풍경을 재현하려 했던 18세기의 풍경식 정원으로 이어진다. 18세기에 이르러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경험이 중시되면서, 정원에 사용되는 소재는 풍경의 개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식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18세기 후반의 도시 공공영역과 정원은 국가적 차원에

서 도덕적 교훈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소가 되었고, 여기에 사용된 소재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기능에 종속되었다.

18~19세기의 픽취레스크 정원과 공공 영역의 정원에 사용된 소재는 관조에 의한 시각적 취향의 향유와 사색을 통한 명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식적 기능과 국가의 정치이념과 권위를 옹호하고 고취시키는 정치·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장식과 정치·사회적 기능에 종속된 소재의 위상은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입된 자본주의에 의해 급속히 퍼져나간 상업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 및 대중의 취향에 부합되도록 조성된 공원 및 정원으로 이어진다.

2. 모더니즘의 소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눈에 보이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과거의 미술전통을 거부하고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과 통찰을 통해서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미술 경향은 모더니즘 건축과 조경에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이래 과거 양식들의 절충적 적용에서 벗어나 건축과 조경은 솔직하고 독창적인 방식에 의한 표현을 추구하게 된다. 새로운 건물과 정원에서는 수공예에 의존한 과거의 장식적 위장보다는 공학적인 구조 및 구성이 드러나며, 전통적인 재료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적 소재가 실험적으로 이용되었다.

소재에 대한 이러한 실험은 미술에서 재현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물질과 붓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였던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인식하였던 회화재료의 물성은 회화적 사실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입체주의 화가들에 의해 벽지나 신문지 등의 실재 오브제를 구성하여 붙이는 플라주 기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다이즘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미술에서 전개되었던 재료가 지닌 고유한 물성에 대한 실험은 모더니즘 조경이 소재의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재 자체의 물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1925년에 열린 파리 산업장식예술 박람회에 전시된 정원들은 전기에 의한 빛과 지형의 변형과 함께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산업재료들의

실험을 이끌었다(Dorothee Imbert, 1993: 28). 이 정원들에서 사용된 물, 콘크리트, 대지, 식물 등의 재료는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독립적인 가치가 인정되었다(Fletcher Steele, 1998: 111). 소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원 설계에서 전통적인 소재는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되는 산업 소재의 실험적 이용을 이끈다. 1920년대의 프랑스 모더니즘 정원에서 대두된 재료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서구의 모더니즘 조경의 재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3. 모더니즘 이후 대지예술에서 발현된 물성

사회와 단절된 채 추구되었던 모더니즘의 순수성과 단순성의 무미건조함과 독단주의를 비판하는 시각과 더불어 1960년대의 복잡한 사회정세는 의미와 맥락이 고려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대지예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지와 환경을 재료로 하는 대지예술가들은 대상지의 장소적 맥락을 중시하고, 지역적·토속적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적 맥락을 수용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그들이 사용한 소재의 물성은 환경적 맥락과 연계되는 한편, 경관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주변의 환경에서 재료를 취하여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작품과 작품이 놓이는 주변 환경맥락을 연계시킨 대표적인 대지예술가인 스미슨(Robert Smithson)은 장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재료를 대상지 내에서 구하고, 이 재료의 물성을 발현시킴으로써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최대로 표현했다.

한편, 대지예술가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문화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반응으로서 인간과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 했다. 그들은 대지로부터 선택한 자연재료만으로 혹은 자연재료와 인공재료를 결합시켜 환경의 의미와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대지예술은 자연 및 인공 소재의 물성이 발현됨으로써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상에서 자연의 형성과정 및 자연 자체를 암시하거나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획득된 문화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III. 조경설계매체로서 물성의 의의

1. 시간의 인지매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후각 중 하나 혹은 동시에 둘 이상의 감각을 자극하는 감각자료를인 물성의 체험이 시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현상학적 시간이 구성되는 시간의식의 지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가는 물성은 이러한 현상학적 시간의식을 형성한다. 재료로 선택되기 이전에 물리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물질은 현상학적 시간의식의 감각내용인 질료(Hyle)에 해당한다. 이 질료에 의미가 부여되는 인식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인식대상이 구성되는데, 이는 조경설계가가 주관에 의해서 소재를 선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인식대상이 주는 생생한 현재의 근원적 인상은 과거와 미래로 지향되는 시간의식의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내적 시간의식의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일된 체험이 구성된다. 이러한 현상학적 시간의식의 형성은 조경설계에서 소재의 매체 요소들을 구성하여 획득된 물성을 통해서 가시화된 시간의 흐름과 이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인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성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태, 색채, 질감의 변모를 드러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과정을 인지 가능한 형태로 가시화한다.

한편, 자연 및 문화의 산물로서 경관을 구성하는 소재가 드러내는 물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흔적을 담으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땅의 역사에 해당하는 경관변화를 인지시킨다. 피터 라쯔(Peter Latz)는 독일의 뒤스부르크(Duisburg)에 위치한 폐기된 티센(Thyssen) 제철소 공장시설물의 흔적들을 기념비적인 조각물로 활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대상지의 역사를 암시하는 공원으로 통합시킨다. 이 통합 전략은 과거를 지우지 않고, 환경, 경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진화하는 경관 변천사와 그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산업과 자연의 결합이 주는 기억, 연상, 느낌과 더불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상징적 의미 전달매체

공간을 구성하는 소재의 물성을 발현시킴으로써 이 공간에 구체적인 형상 및 의미를 부여하는 조경설계 과정은 예술작품의 형식적 측면과 유사하다. 조경설계 작품에서 형식화된 예술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해당하는

경관의 의미는 재현과 은유로써 표현된다. 주제는 매체를 통해서 내용으로 실현될 때 일종의 변형이 가해지는데, 조경설계가는 이 매체에 해당하는 소재의 물성을 발현시킴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 모티브와 유사한 이미지로 재현하거나 설계가의 주관에 의해 재구성된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소재는 작가가 부여한 의미와 사회·문화적 맥락과 환경적 맥락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소재가 지니는 이러한 의미들은 물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의 생성을 허용하면서 유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경관 의미의 전달 방식은 묘사나 서술보다는 재현과 표현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의미작용을 유발한다. 물성은 그 고유의 불변하는 성질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가변적인 성질을 발현시킴으로써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경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한편, 직유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은유를 통해 경관 의미가 전달되기도 한다. 경관을 매개로 하는 은유적 표현은 육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내면에 형성된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경험과 이미지는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중재되며, 많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조경설계는 경관을 구성하는 소재가 일정한 시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획득한 의미를 다른 시공간의 범위로 연장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또 하나의 경관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재의 물성 발현 행위는 경관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소통 체계를 형성한다.

3. 공감각을 통한 참여매체

환경과 관계를 맺는 체험의 객관적 기술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와 경관을 고려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등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험을 유발시킨다. 세계에 존재하는 몸의 양상으로서의 감각들이 중첩되고 섞임으로써 형성되는 공감각은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느끼고 지각함으로써 현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세계와의 구체화된 상호작용과 연관된 개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장소와 경관은 역동적으로 얽히는 다차원적 감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Christopher Tilley, 2004: 14-15). 이러한 공감각적

지각은 벌리언트(Arnold Berleant)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기반을 둔 참여(engagement) 개념의 전제가 된다. 미적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정신 상태를 넘어서 확장되는 미적 경험은 다중 감각으로 구성된 공감각을 통해서 대상과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로 이어진다. 이로써 미적 참여는 지각의 통합에 의해 대상과 수용자를 연결시키며, 미적 경험을 유발시킨다. 즉, 미적 경험이란 공감각을 통해서 통합된 미적 경험이 발생하는 미적 장으로의 참여이다(Arnold Berleant, 1991: 46-47).

재료의 부드럽고 거칠고, 차갑고, 따뜻하고, 날카롭고, 매끄럽고 단단하고, 무른 질감은 촉감을 자극함으로써 시각과 촉감을 통합시키고, 철, 콘크리트, 목재 등의 특유의 냄새는 시각 혹은 촉각과 더불어 후각을 자극하는 물성이다. 또한 중력의 방향으로 흐르고 떨어지면서 내는 물의 소리와 발걸음에 서로 맞닿는 자갈의 마찰음은 공기를 매개로 하여 청각을 자극하는 물성이다. 이렇게 공감각적 지각을 유도하는 물성은 자연과 분리된 관조자로서가 아닌 참여자로서 자연과 삶의 체험을 연결시키고, 이로써 삶은 자연으로 확장되어 자연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각 중심적인 지각을 넘어서 소리와 냄새, 촉감으로써 공감각적 지각을 자극하는 물성은 서로 다른 감각들을 연계시키며 체험의 깊이를 더해준다.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두고 보는 시지각적 행위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관조자와 객체로서의 대상이라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주체-대상의 이분법적인 관계는 경관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한 지점에서, 한 순간의 불연속적이고 정적인 경관을 보는 행위로 국한시킨다. 시각에 의존하는 지각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적 층위의 의미가 축적되고 중첩되면서 진화하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경관을 제대로 지각할 수 없다.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화하는 복합체로서의 자연을 체험하는 일은 시각적 감각과 연계된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의 연합을 통한 공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상학적 관점의 상호 존재에의 참여와 경계론적 관점의 인식주관과 대상의 구별이 없는 물화의 상태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확장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통합되는 환경으로의 참여를 함의한다. 이런 참여의 개념은 심리적, 물리적 거리에 의해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분리를 상정한 데카르트 이후 서구의 분석철학이 초래한 인간과 환경과의

소통 단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벌리언트가 제시한 공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형성된 대상과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으로의 참여 개념으로 이어진다. 주변 환경의 맥락과 연계되는 물성은 관조자의 경계와 소재의 경계를 주변 환경으로 확장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IV. 결론

소재는 시각과 연계된 다양한 감각을 연합적으로 자극시켜 공감각적 지각을 유도함으로써 인간 문화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설계언어이다. 예술에서 색조와 음색에 해당하는 매체는 조경설계에서 소재의 물질적 특성인 물성에 해당하며, 조경설계과정은 이 물성을 발현시킴으로써 공간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에서 재료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통해서 전개된 물성개념을 살펴보고,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미술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조경 분야에서의 기존 재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모더니즘 조경과 모더니즘 이후 대지에 있어서 전개된 물성 개념을 고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대 조경에서 물성 발현이 지니는 의의를 제시하였다.

현대조경설계에서 사용되는 조경소재는 전통소재에서 광섬유, LED조명, 레이저(LASER)와 같은 첨단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공기술의 발달로 소재의 표현 양상 또한 다채로워졌다. 그러나 현대조경설계에서는 이들 소재를, 그 물성을 통해서 설계의 중요한 개념과 의미를 표현하는 설계매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진귀한 볼거리나 장식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재는 그림 속 풍경과 같이 확정되고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외부환경 및 침식·풍화작용에 반응하면서 고유의 방식으로 물성을 드러내는 가변적인 물질이다. 생명력을 지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잠재적으로 드러나는 물성과 그 표현 가능성이 고려될 때 물성은 무한한 표현력과 다양한 상징성을 획득하여 현대조경설계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설계매체가 될 수 있다. 재료에 대한 기존의 기술공학적 접근과 시각에 국한된 인식을 탈피하여 재료가 드러내는 물성의 미적이고 의미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각

을 통한 다차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물성은 주변 환경의 맥락과 소통함으로써 경관의 의미를 담아내는 역동적인 매체로서, 공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경험을 환경으로 확장시키는 참여 매체로서 의의를 지닌다.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에 관한 연구는 재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발현되는 조경소재의 물성을 통해서 경관의 의미를 표현하고, 조경설계언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1. 물성(物性)은 글자 그대로 "물건(物件)의 성질"을 뜻하며, 영어의 'materiality'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물건은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 되어 존재하는 모든 유형체(有形體)"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외형뿐 아니라 물체에 내재해 있는 고유의 성질인 실체도 포함하여 물성을 "물질의 성질"이라 정의하며, 동·식물과 기상에 의한 풍화 및

침식작용에 의해 미묘하게 변하는 성질도 포함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정태적인 특성과 보편적 의미를 지닌 기존의 재료에 대한 개념은, 가변적으로 발현되는 물성을 지니는 동태적이고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매체로서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인용문헌

1. 서울시 한강사업기획단(2000) 선유도 공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Berleant, Arnold(1991)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3. Imbert, Dorothée(1993) The Modernist Garden in France, U.S.: Yale University Press.
4. Steele, Fletcher(1998) New Pioneering in Garden Desig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A Critical Review, Cambridge: MIT Press: 108-113.
5. Tilley, Christopher(2004) The Materiality of Stone, New York: Berg.